



김문식 · 국립보건원장

사스(SARS) 출현으로 되짚는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위기

지 난해 11월 중국에서 발생한 미확인 전염병의 발생으로 비롯된 사스는 전세계적으로 28개국에서 5,462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35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4.30) 의사환자 14명이 있으며 4월 29일 발표된 추정환자는 세균성 폐렴일 가능성이 있어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사스 환자의 유입이 다행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사스 환자의 발생과 전파 추이로 볼 때 우리 나라도 곧 유입 사례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즈음 사스 출현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들이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전염병관리에 있어 공공보건체계 와해에서 기인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천명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세계는 지금은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홍역 등의 재 유행과 콜레라의 재 유행이나 에이즈와 같이 20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신종 전염병으로 사회·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보건증진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 경제적 차원의 국가 위기 초래는 물론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적어도 30여종의 새로운 전염병(에이즈, 에볼라, O157 대장균증 등)이 새로이 등장하여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홍콩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 사례가 최근 몇 년간 지속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 변이에 의한 30년 주기의 대유행 가능성

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사스와 같은 미확인 전염병의 발생 사례는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사스로 인해 소비감소, 국가간 무역교류 중단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 경제 손실은 약 미화 300억불(37조원)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유행 지역의 GDP는 1% 감소하고 경제성장은 0.25%~1%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약 20억불의 경제손실이 추정되고 이는 지난 2001년 8월 콜레라 발생 사실 보도만으로도 경남지역 어민 피해가 하루 약 2,000억원에 달하였던 사례나 2002년 9월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금액이 2,300억원에 달하였던 사실에서도 충분히 경험한 것들입니다.

또한 전염병은 생물테러라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안보차원의 문제로 모든 국가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9.11테러와 병행하여 발생한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테러로 전세계가 백색가루 소동으로 '홍역'을 앓았고(아직까지 테러분자와 테러 병원체 유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음), 1980년 지구상에서 박멸된 두창(천연두)이 생물테러로 재 등장하고 그 위협으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물론 우리 나라 또한 전국민 예방접종 대비용으로 두창백신을 비축을 중에 있으며 유사 시 최단기간 내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단순히 보건증진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가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 되었으며, 보건당국은 물론 보건의료관련 단체 및 기관, 전 보건의료인이 이에 전향적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는 단순히 보건증진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가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 되었으며, 보건당국은 물론 보건의료관련 단체 및 기관, 전 보건의료인이 이에 전향적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스의 원인 병원체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항균제가 투여되었고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Ribavirin)을 스테로이드와 동시 또는 단독으로 투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인 병원체를 밝히고 적절한 환자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한 팀을 구성하여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태평양지역 사무처가 있는 마닐라에 대책본부를 두고 약물공급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3월 13일 중증급성증후군에 대한 신고, 진단, 관리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중국(홍콩을 포함한 전지역), 싱가포르, 베트남에 대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스 환자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물론 국내전파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월 29일 국내 첫 추정환자 사례 발표 이후 과도한 사회불안이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인에게 전문가적인 자세 견지와 국민에게는 절제된 생활습관 유지를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는 총성 없는 전쟁이며, 보건의료인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항하는 최일선의 '군인'이라고 보면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적'을 막기 위해 충실한 준비와 힘을 기를 것입니다. 71